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Korea-Myanmar Association for Economic & Security Studies

창립기념 세미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의 미래

A New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2026. 9. 15. (화) 10:00-16:00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

CONTENTS

목 차

행사 전체 프로그램	3
제 1 부 창립기념식	5
개회사 · 최신일 KMAESS 이사장	5
축사 · 임종득 국회의원	6
축사 · H.E. Myo Myint Maung 주한 미얀마 대사	
축사 · 황동준 KDDA 이사장	
사단법인 창립선언문 · 문성묵 정책자문위원	
제 2 부 정책세미나	
기조강연 · 김태현 중앙대 교수	
주제발표 ① ·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21
주제발표 ② · Win Pa Pa Thu 미얀마대사관 상무관	34
주제발표 ③ · 김선규 요진건설산업(주) 전무	44
제 3 부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세션	47
KMAESS 기관소개	49

VIDEO CONGRATULATORY MESSAGES

미얀마 주요 인사 영상축사

- Wah Wah Maung 전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 Htein Lynn (Ministry of Commerce / MyanTrade)
- UMFCCI 회장

※ 제1부 축사 순서 중 상영

※ 본 프로그램북의 발표자료는 인쇄 편의를 위해 일부 지면 편집·재배치하였으며,
발표 시에는 발표자의 원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GRAM

전체 프로그램

제 1 부 창립기념식 | 10:00-11:00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5	개회사 최신일 KMAESS 이사장
10:15-10:30	축사 임종득 국회의원 · H.E. Myo Myint Maung 주한 미얀마 대사 · 황동준 KDDA 이사장
10:30-10:35	사단법인 창립선언 문성묵 KMAESS 정책자문위원
10:35-10:45	감사패 수여 주한 미얀마 대사
10:45-10:55	임명장 수여 KMAESS 임원 · 고문 · 자문위원
10:55-11:00	기념촬영

제 2 부 정책세미나 | 11:00-12:30

11:00-11:20	기조강연 김태현 KMAESS 이사 / 중앙대 교수
11:20-11:35	주제발표 ① 송승종 KMAESS 이사 / 대전대 특임교수
11:35-11:50	주제발표 ② Win Pa Pa Thu 미얀마대사관 상무관
11:50-12:05	주제발표 ③ 김선규 KMAESS 이사 / 요진건설산업(주) 전무
12:05-12: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백순 KMAESS 고문(전 주미얀마 대사)

PROGRAM

전체 프로그램

오찬 및 휴식 | 12:30-13:30

12:30-13:30 오찬 및 네트워킹

제 3 부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세션 | 13:30-16:00

13:30-14:00	KMAESS-SSS Group MOU 체결 한-미얀마 경제협력 및 민간 네트워크 확대
14:00-14:30	SSS Group Company Presentation Myanmar Business Presentation
14:30-15:00	Korean Company Presentations 한국 기업의 사업 및 협력 프로젝트 소개
15:00-16:00	Business Networking & Partnership Meetings 한-미얀마 기업·기관 간 상담 및 협력 논의

행사 안내

- 행사 종료: 16:00
- 제 2 부 발표자료는 프로그램북 지면에 맞게 편집·재배치하여 수록했습니다.
- 제 3 부 세부 발표내용 및 참여기업은 행사 당일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KMAESS)

www.kmaess.or.kr

개 회 사

최 신 일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 이사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의 창립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임종득 국회의원님, 주한 미얀마 대사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멀리 미얀마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SSS Group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회의 출범과 오늘 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연구단체가 새롭게 출범했음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넘어 다시 신뢰를 쌓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 서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환경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그 위에서 가능한 협력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MAESS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고,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며, 생각을 현실적인 협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 양측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의 미래」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해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MAESS는 각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한국과 미얀마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연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긴 여정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KMAESS의 창립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사장 최 신 일

축 사

임 종 득

국회 한국-미얀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한국-미얀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오랜 준비와 많은 노력 끝에 오늘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오늘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 노력해오신 최신일 이사장님을 비롯해 연구회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오랜 기간 경제와 산업, 인적 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제조업과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얀마 경제 발전에 함께해 왔으며 양국 기업인과 교민들은 현장에서 신뢰와 교류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얀마의 대내외 여건과 국제 환경은 여러 방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보니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전문가들이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의 기반을 생성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과 공급망, 자원, 인재 교류 등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출범하는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가진 경험을 모으고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한국-미얀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나누는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찾고 양국 관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신일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임 종 득

CONGRATULATORY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H.E. Myo Myint Maung

Chargé d’Affaires a.i. /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Honorable Lim Jong-deu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r. Choi Shin-il, Chairman of KMAESS,
Mr. Hwang Dong-jun, Chairman of the Korea Defense Diplomacy Association (KDDA),
Brigadier General Kyaw Kyaw Naing, Defense Attaché,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and honor for me to be here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Korea-Myanmar Association for Economic & Security Studies, KMAESS.

My name is Myo Myint Maung, Ambassador of Myanmar. I’m currently serving as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outse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those, including Mr. Choi Shin-il, and all persons, who have supported the organization of this seminar.

I also appreciate your choice of such a timely and meaningful theme for today’s event: “A New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security. As a more complex, multipolar global order emerges, economic competition, geopolitic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supply-chain, and energy security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connected.

Against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Myanmar is making concerted efforts to promote the socio-economic well-being of its people while actively engaging and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our foreign policy, Myanmar pursues an independent, active, and non-aligned foreign policy based on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Myanmar is also strategically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Our strategic geographical position offers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connectivity,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ider reg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President of Myanmar, His Excellency Min Aung Hlaing, has warmly invited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Myanmar.

There are opportunities in many sectors, including energy and infrastructure, agriculture and livestock, agro-processing, renewable energy, education and healthcare, digital technology, tourism, electric vehicles, manufacturing, pharmaceuticals, and value-added industries.

The Government of Myanmar is also continuing its efforts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ese efforts include simplifying procedures,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s for investors, implemen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These initiatives demonstrate Myanmar's commitment to creating a more conducive environment for investment and encourag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sector in our economic development.

Later today, our Economic Counsellor from the Myanmar Embassy will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Myanmar's econom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Therefore, I will not go into too much detail at this point.

Ladies and Gentlemen,

I believe this is a good time for Myanmar and Korea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As you all are aware, Myanmar is blessed with rich natural resources. We have natural gas, petroleum, hydropower resources, and valuable minerals such as gold, copper, tin, tungsten, nickel. And others are forests and marine resources.

Moreover, Myanmar has wide plains, many rivers, thick forests, and fertile land. As I have already mentioned, Myanmar is strategically located as a gateway connecting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Myanmar can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connectivity and supply-chain diversification, while Korea brings advanced technologies, strong industrial capabilities, extensive investment experience, and valuable expertise in human-resource development. These strength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e future of Korea-Myanmar relations should be built on mutual understand, mutual respect, trust, political will, and pragmatic cooperation.

As	KMAESS	emphasizes:
Research	with	insight.
Network	with	trust.

Cooperation with impact.

The Myanmar Embassy welcomes KMAESS's efforts to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and pragmatic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 believe today's seminar, together with the future initiatives of KMAESS, can serve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stronger and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Myanmar and Korea.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KMAESS on its inauguration.

I sincerely hope that KMAESS will become an active platform for research, dialogue, networking, and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I am also confident that today's seminar will help identify new and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he Myanmar Embassy looks forward to continued cooperation with KMAESS and all stakeholders in further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May Korea–Myanmar friendship and cooperation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in the years ahead.

ကျေးဇူးတင်ပတယ်။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Gam sa ha mni da.)

축 사

황 동 준

한국국방외교협회(KDDA)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연구회의 출범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애써 오신 최신일 이사장님과 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임종득 국회의원님과 주한 미얀마 대사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역 분쟁과 경제안보의 부상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 외교와 산업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며, 국가 간 협력 역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범하는 KMAESS의 역할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동시에 정치·안보적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제재, 복잡한 대외관계 등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여러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MAESS가 앞으로 한국과 미얀마를 잇는 전문적인 연구 플랫폼이자 실질적인 협력의 가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연구와 학술교류를 넘어 양국의 기관과 기업, 전문가를 연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실행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방외교협회(KDDA)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MAESS와 상호 협력하며, 양국 간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창립기념 세미나가 KMAESS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한국과 미얀마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KMAESS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신일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국방외교협회(KDDA) 이사장 황 동 준

사단법인 창립선언문

문 성 목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정책자문위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상호 이해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과 미얀마는 오랜 우호와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세와 미얀마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와 균형 있는 정책 제언, 그리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얀마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미얀마 간 경제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셋째, 책임 있는 투자와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과 기관의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특정한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성과 객관성,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의 창립이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출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미얀마를 잇는 새로운 지식과 신뢰의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의 창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2026 년 9 월 15 일

정책자문위원 문 성 목

KEYNOTE ADDRESS

문명사적 대전환기

대한민국 외교대전략 구상과 대미안마 정책

김 태 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KMAESS 이사

2026. 9. 15.

※ 발표 원고를 프로그램북 지면에 맞게 핵심 중심으로 편집·재구성한 수록본입니다.

I. 들어가기 — 문명사적 대전환과 대한민국 외교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태하고, 정신 차려 뛰면 도약할 수 있는 시기다. 이 글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다. 둘째, 그러한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도약하려면 대한민국은 획기적인 외교태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미얀마 정책은 그러한 전환을 시험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1. 총과 돈과 말의 국제정치

인간 삶에는 죽고 사는 ‘생존’, 먹고사는 ‘생계’, 인간답게 사는 ‘의미와 충만’의 문제가 있다. 국제정치의 폭력과 권력은 ‘총의 세계’, 생산·교환·금융과 세계시장은 ‘돈의 세계’, 규범·문화·정보와 의미의 질서는 ‘말의 세계’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폭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시장은 전례 없이 확대되었으며,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문명의 경계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 이 세 영역의 긴장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지금, 국제질서는 단순한 권력경쟁을 넘어 문명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2. 참람(僣濫)과 경동(驚動)

휴브리스(hubris)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오만을 뜻한다. 국제정치에서도 힘과 시장, 기술이 한계 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은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 냉전 이후 세계는 평화를 낙관했지만, 핵확산·금융위기·기후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은 그 낙관을 흔들었다.

세계가 경동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II. 외교태세의 전환 — 도태되지 않고 도약하기

1. 국제질서의 새 그림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주권평등을 주장하지만, 현실의 국력 차이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작은 국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는 보유한 자원과 역량, 정체성에 따라 국제질서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위치	정치 (질서유지)	경제 (생산·유통)	사회 (규범·문화)	정보 (소통·교류)
상	패권국/리더	상류/디자인	제정자/생산자	허브/개시자
중	중견국/관리자	중류/조립	해석자/배급자	커넥터/라우터
하	추종자	하류/원료	수용자/소비자	수신자/소비자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은 자신의 국력과 국력 구성비, 국가정체성에 맞는 자리를 찾아 국제질서 속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있다.

2. 대한민국의 국력과 역할

국가마다 군사력·경제력·기술력·문화력의 구성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국제체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능도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강대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할 이유도 없다. 중견국·관리자·커넥터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3. 외교태세와 국가정체성

외교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형성된다. 가치와 이익을 기계적으로 양자택일하기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정체성에 맞는 일관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외교태세의 전환은 바로 그 국가적 ‘에토스’를 세우는 문제다.

III. 왜 미얀마인가 — 전략적 교차점의 가치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하나의 개발도상국에 그치지 않는다. 북쪽과 동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벵골만과 안다만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열린다.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국,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차점이다.

중국에 미얀마는 중국 서남부를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고, 인도에 미얀마는 동방정책을 ASEAN 과 연결하는 관문이다. ASEAN 차원에서도 미얀마의 안정과 발전은 역내 통합과 안보에 직결된다. 미얀마 문제는 곧 미·중 전략경쟁, 중국과 인도의 경쟁과 협력, ASEAN 의 미래, 인도·태평양 질서가 교차하는 문제다.

공급망·경제안보·에너지안보·전략산업이 국가안보와 결합하는 시대에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ASEAN 회원국이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보유한다. 강대국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이 움직일 여지가 존재한다.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도 이미 기업 투자와 교역, 개발협력, 인적교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 상당한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앞으로 산업화와 인프라, 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교육·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IV. 대미얀마 외교전략 — 비난을 딛고 비약을

2021 년 이후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지원 중단, 정부 승인 거부에 따른 외교관계 격하 등 강한 조치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접근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미얀마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는 진공이 없다. 한국이 비워둔 공간에는 중국·러시아·인도·ASEAN 주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들어간다.

1. 가치외교와 이익외교는 양자택일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대화한다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접촉하면서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반대할 것은 반대할 수 있다.

대미얀마 정책은 ‘관여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다운 외교

한국은 전쟁과 빈곤을 경험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경제발전을 지원한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경제협력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발전과 교육, 인적자원 개발, 민생 안정은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과 정치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강대국을 따라가는 외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외교, 선언에 머무르는 가치외교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외교, 경제적 이익만 쫓는 외교가 아니라 상대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함께 추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V. 대미얀마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1.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외교관계 정상화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미얀마 측과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다. 정상회의를 포함한 Top-down 식 접근도 적극 검토한다.

2. 대미얀마 외교 역량을 격상한다.

미얀마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수성과 현지 사정에 밝은 인사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고 정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 외교는 상대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외교가 필요하다.

3. 한·미얀마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다.

2027 년 이른 시점에 네피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경험 및 미얀마에의 교훈”을 주제로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다. 학계와 경제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경제발전, 국가 역량 증진,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발전의 경험을 공유한다.

4. 미얀마 경제개발계획과 연계한 ODA+EDCF+민간투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인도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 국민의 삶과 경제 회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개발 협력으로 확대한다.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인적 자원, 농업과 산업 기반 등 가능한 분야에서 ODA 와 EDCF,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민간 경제협력을 관계 개선, 증진, 비약을 위한 선도 축으로 활용한다.

양곤에서 양국 상공인과 기업,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Top-down, 민간 차원에서는 Bottom-up 으로 접근하여 함께 어울릴 때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

VI. 맺음말 — 도태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이상은 미얀마의 현 정부의 배경과 정체성에 대한 호오(好惡)와 무관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진로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태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세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모습을 갖추지 못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다. 대한민국이 질서의 소비자에 머물 것인가, 질서의 창조자가 될 것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미얀마가 바로 그 최초의, 그리고 결정적인 시험장이다.

비난을 넘어 관여로, 관여를 넘어 협력으로, 그리고 협력을 대한민국 외교의 비약으로 연결할 때다.

기조강연 핵심 메시지 (프로그램북 편집 요약)

- 세계는 단순한 다극화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과 질서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다.
- 대한민국은 강대국 추종형 외교가 아니라 국력과 정체성에 맞는 중견국·관리자·커넥터 역할을 찾아야 한다.
- 미얀마는 중국·인도·ASEAN·인도양이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이며, 경제안보 시대에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 대미얀마 정책은 ‘단절 대 관여’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 가치와 국익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대화·개발협력·민간교류를 통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위급 대화 복원, 외교역량 정상화, 정책대화, ODA+EDCF 패키지, 민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다.

미얀마 정책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전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김태현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KMAESS 이사

미얀마 정세변화와 한국 - 미얀마 경제협력 비전 : 한국의 관점

(2026.9.15, 화)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송 승 종

발표 순서

1

• 들어가며 : 왜 지금 미얀마인가 ? (Why Myanmar Now?)

2

• 미얀마 정세 : 군복을 벗은 군정 , 끝나지 않은 전쟁

3

•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4

• 한국형 조건부 관여의 설계 : 고립 - 승인을 넘어

5

• 한·미 경제협력 로드맵 : 문틈을 열고 선택지 선점

6

• 정책 제언

원본 슬라이드 2

I. 들어가며 : 왜 지금 미얀마인가 ? (Why Myanmar Now?)

■ 왜 지금, 왜 미얀마인가 (Why Myanmar Now)

● 2026년의 미얀마는 제도적 전환, 다원적 대외협력, 중희토류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략적 연결국가

- 전략적 교차점: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을 잇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경제적 교차점
2026년 새 연방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중국·라오스·태국을 잇는 정상외교가 연이어 전개되며 대외협력의 선택지가 확대



제도 전환

대외협력

중희토류

- 동시적 변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중희토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얀마는 자원 보유국을 넘어 전기차·로봇·풍력·첨단제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 후보로 부상
한국은 2021년 이후의 정책을 현재 여건에 맞게 점검하고, 민생·기업·기술·인재를 중심으로 단계적 협력의 공간을 넓힐 필요

- 한국의 선택: 오늘 출범하는 연구회는 양국 정부·산업계·학계·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트랙 1.5 지식 플랫폼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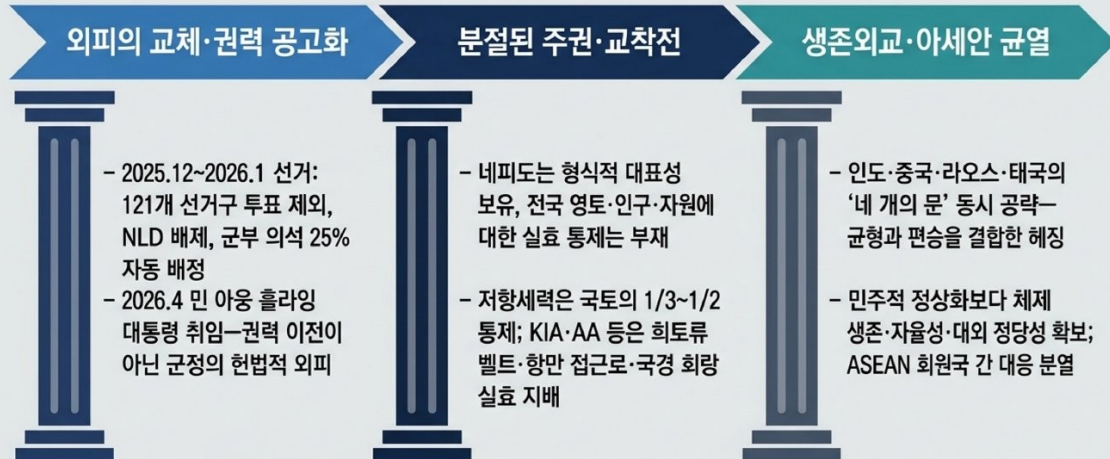
송승중, 「제재와 희토류 사이」, KMAESS 창립기념세미나 발제문

3

원본 슬라이드 3

II. 미얀마 정세 : 군복을 벗은 군정, 끝나지 않은 전쟁

● 문민화가 아닌 외피 교체, 통합 통치가 아닌 분절된 주권, 정상화가 아닌 생존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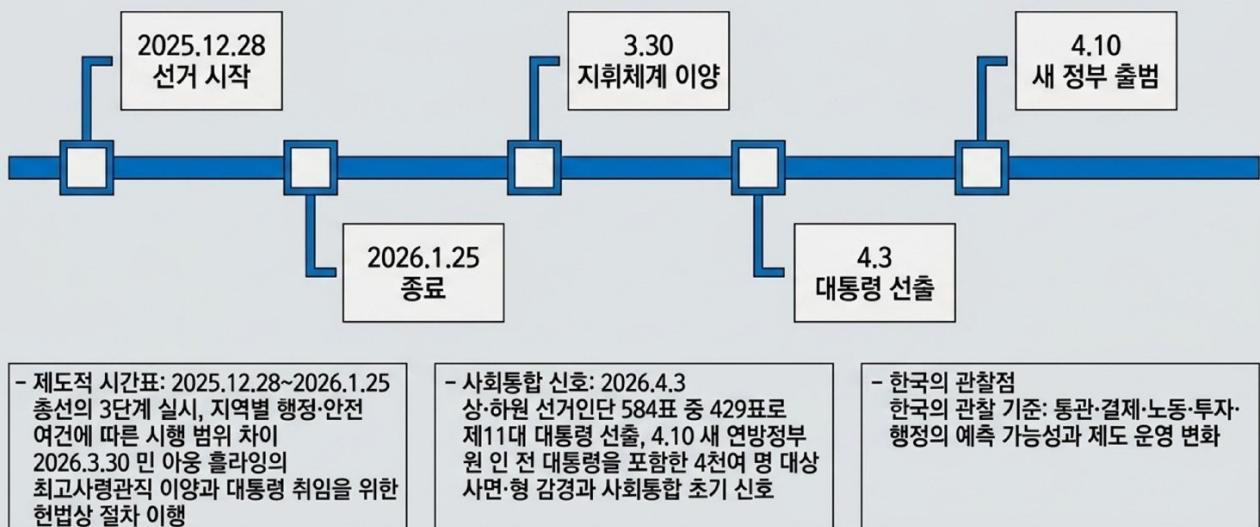


4

원본 슬라이드 4

■ 선거에서 대통령 취임까지의 제도 전환 (Institutional Transition)

● 2025년 말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일정은 비상운영체제에서 헌법상 정부 구조로 이동하는 제도적 전환의 시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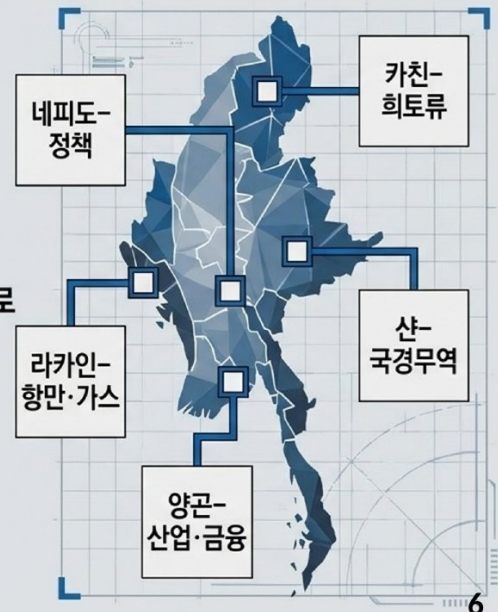
승승중(2026), 제1장 제1절.

원본 슬라이드 5

■ 다층적 주권과 지역별 협력 여건 (Layered Sovereignty)

● 미얀마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가대표 기능과 지역별 행정·경제 운영이 병존하므로 협력도 다층적으로 설계 필요

- 지역별 차이: 중앙정부는 조약·외교·국가제도를 담당하지만, 일부 국경·자원 지역에서는 지역기구가 주민 생활과 이동경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카친주의 치퓌·팡와는 중히토류, 라카인주의 짜욱푸는 심해항과 에너지 회랑, 산주는 국경무역과 육상물류에서 핵심
- 핵심 경제노드: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합의만으로 물류·환경·지역사회 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모두 판단에 한계
정부 간 공식 소통, 아세안·국제기구 협력, 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 지역사회 접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필요
- 다층 접근: 다층 접근은 특정 주체를 배제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포용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위험관리



송승중(2026), 제1장 제2절.

원본 슬라이드 6

■ 네 개의 문과 실용외교의 확장 (Four Diplomatic Doors)

● 2026년 미얀마 외교는 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며 선택지를 확대하는 헤징 전략의 성격을 확인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 인도·중국: 인도 방문(5.30-6.3): 기술·에너지·핵심광물·국경 인프라 협력을 확인하며 서부와 인도양 방향의 연계성을 강화 중국 방문(6.15-6.19): 재난지원·보건·언론·인공지능·디지털경제 등을 포함한 18건의 협정·양해각서를 체결		- 라오스·태국: 라오스 방문(7월): 메콩권 국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역내 연결성 강화의 기반 강화 태국 방문(8.6-8.7): 노동·환경·국경협력과 함께 양자교역 120억 달러 목표를 제시해 실무경제 협력을 전면화	
- 한국의 공간: 아세안 회원국은 각자의 국경·교역·인도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사안별 협력의 공간을 제공			

편승이 아닌 다원적 헤징

송승중(2026), 제1장 제3절; 최신일(2026).

7

원본 슬라이드 7

III.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가치

■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가치 (Rare-Earth Strategic Value)

● 중희토류는 미얀마를 자원 보유국에서 한국의 미래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제안보 파트너 후보로 전환

- 산업적 필수성: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내열성과 성능을 높이는 핵심 원소이며 공급원은 매우 제한적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발전기, 산업용 로봇, 드론, 정밀기기 등 한국의 주력·미래산업에 폭넓게 활용
- 미얀마의 위치: 카친주 치퓌·팡와의 이온흡착형 점토층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중희토류 공급원이며 중국 정제산업과 긴밀히 연계 한국은 최종제품 제조에서는 경쟁력이 높지만 채굴·농축·분리·정제·합금·자석 등 상류 공정에서 외부 의존도 심화
- 협력 목표: 양국 협력의 목표는 단순 원료 확보가 아니라 데이터·환경·정제·재활용을 포괄하는 신뢰 가능한 공동 가치사슬의 구축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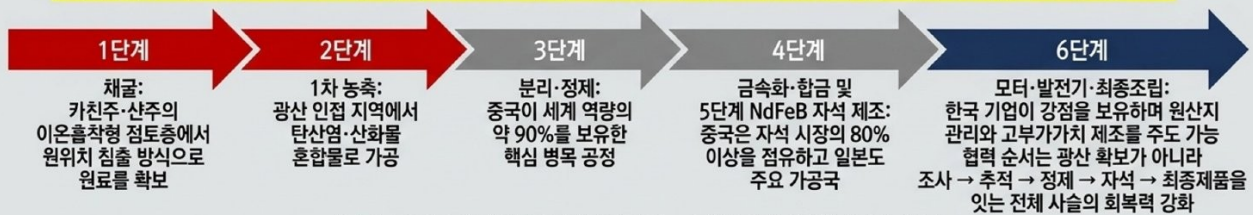
송승중(2026), 제2장.

8

원본 슬라이드 8

■ 광산에서 영구자석까지의 공급망 6단계 (Six-Stage Supply Chain)

● 공급망을 여섯 단계로 분해하면 한국이 어디에서 취약하고 어디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가 명료화



〈표 1〉 카친주 광산에서 한국 공장까지 - 중희토류 공급망 6단계 해부

단계	공정	주요 위치	통제 주체	한국의 개입 가능성
1	채굴(원위치 침출)	카친주 치퓌·팡와, 산주 만통	카친독립군, 타양민족해방군, 와주연합군	직접 개입 불가. 위성영상 기반 활동 모니터링에 한정
2	1차 농축(탄산염·산화물 혼합물)	광산 인접 현장	중국계 기업과 현지 무장조직의 결합	직접 개입 불가. 무역통계 분석으로 물동량 추정
3	분리·정제	중국 장시·광둥 등	쿼터를 배분받은 중국 국유 2개 그룹	제3국 대체 정제 협력. 호주 등 사업자와의 분리 공정 제휴 추진
4	금속화·합금 제조	중국	중국 기업	국내 설비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
5	영구자석(NdFeB) 제조	중국(세계 80% 이상), 일본	중국·일본 기업	생산 내재화, 재자원화, 대체·저감 기술
6	모터·발전기·최종 조립	한국	한국 기업	전면 통제가능. 원산지 신고와 실사 의무화

송승중(2026), 제2장 제1절 〈표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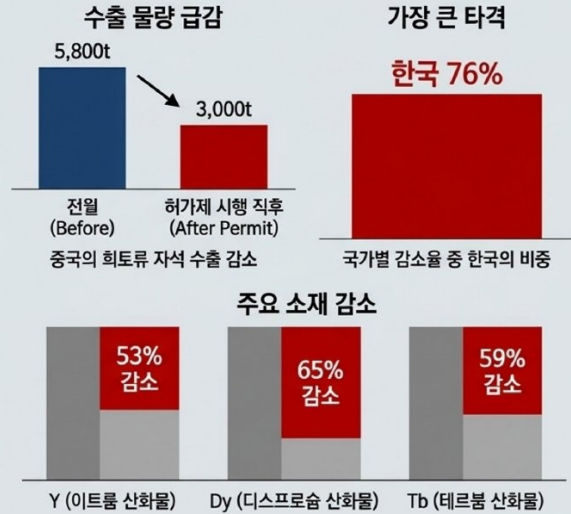
원본 슬라이드 9

■ 수출허가제가 드러낸 한국의 최대 노출 (Export-Control Shock)

● 2025년의 수출허가제는 한국 산업이 희토류와 자석 공급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수치로 확인

- 수출 급감: 2025년 4월 중국은 디스프로슘-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7종과 고성능 자석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
허가제 시행 직후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은 전월 약 5,800t에서 약 3,000t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한국의 충격: 국가별 감소율에서 한국은 76%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완제품 제조 역량과 상류 소재 의존도의 불균형이 노출 1년 누적 기준으로 이트륨 산화물 53%, 디스프로슘 산화물 65%, 테르븀 산화물 59%가 각각 감소
- 대응 패키지: 한국의 대응은 비축만이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 국내 분리·정제·자석 생산, 재자원화, 저감·대체기술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 필요

수출허가제 충격 요약 (Export-Control Shock Summary)



송승중(2026), 제2장 제1절; 중국 해관총서 통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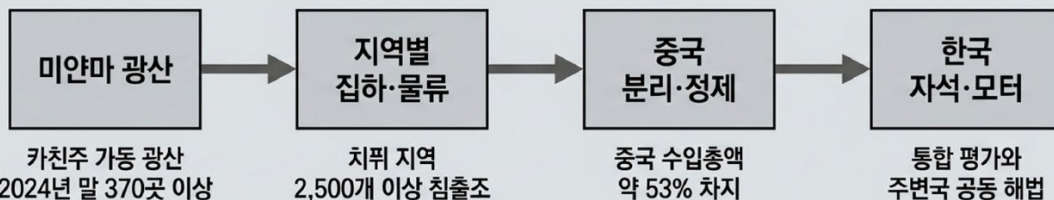
10

원본 슬라이드 10

■ 미얀마 자원·지역 운영·중국 정제의 연결 (Three-Link Rare-Earth Structure)

● 미얀마 희토류의 현실적 가치는 광맥의 위치, 지역별 운영 구조, 중국 중심 정제역량을 함께 볼 때 정확히 평가

- 규모의 확대: 2017~2024년 대중국 희토류 수출 29만t·42억 달러 이상 추정, 약 85%의 2021년 이후 집중
카친주 가동 광산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말 370곳 이상으로 확대
- 정제 병목: 치위 지역 2,500개 이상 침출조 확인과 원료 생산 규모의 급속한 증대
2025년 1~9월 미얀마산 희토류의 중국 수입총액 약 53%, 양국 산업의 높은 상호연계성
- 투자 원칙: 한국의 선행 과제: 제:지질품위·회수율·물류·지역사회·정제 가능성의 통합 평가와 주변국 공동 해법



송승중(2026), 제2장 제2절; Stimson Center 인용.

11

원본 슬라이드 11

■ 책임 있는 중희토류 공급망의 3대 요건 (Responsible Heavy Rare-Earth Supply Chain)

- 지속가능한 협력은 국제규범 준수, 환경관리, 지역사회 포용을 비용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으로 보는 데서 출발

- 국제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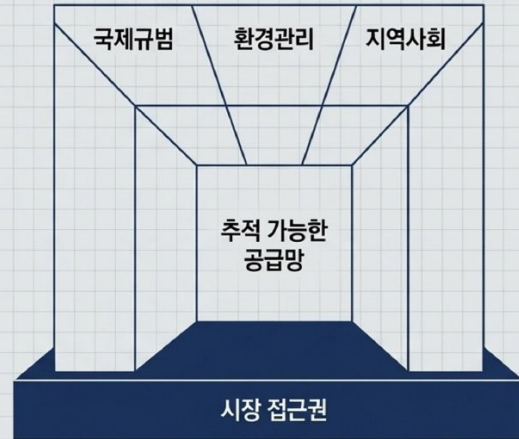
규범: 거래 상대와 실소유 구조, 계약과 대금 흐름, 국제 거래규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기업 실사체계를 마련
환경: 수질·토양·퇴적물의 기준선을 공동 조사하고 원위치 침출의 화학물질 사용·폐수·복원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

- 환경·지역사회

지역사회: 안전한 작업환경, 공정한 이익 공유, 주민 참여, 지역 인프라 개선을 사업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포함
원산지 추적: 광산-농축-정제-자석의 이력을 디지털로 연결하고 동위원소비·미량원소 기반 산지 판별 기술을 고도화

- 공동 표준

국제 연계: OECD 고위험지역 광물 실사 지침과 배터리·자석 관련 규범을 미얀마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공동 표준을 개발



송승중(2026), 제2장 제3절: OECD 실사 지침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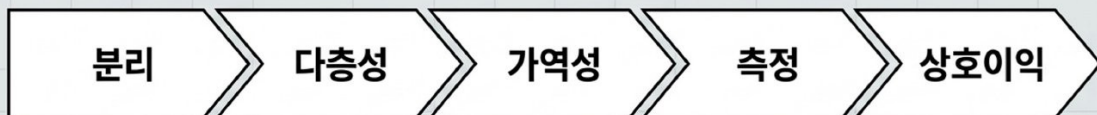
12

원본 슬라이드 12

IV. 한국형 조건부 관여의 설계 : 고립 - 승인을 넘어

■ 거리두기와 전면협력 사이의 제3의 길 (A Third Way)

- 한국은 거리두기와 전면협력의 이분법을 넘어 **민생·안전·기술·통상·제도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실용적 접근**을 설계 가능



- 정책 원칙: 첫째 원칙은 분리 / 외교적 판단, 실무적 대화, 기업의 상업거래를 서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구분
둘째 원칙은 다층성 / 중앙정부·지역사회·국제기구·산업계·학계와 의제에 맞는 서로 다른 소통 통로를 운용
- 운용 방식: 셋째 원칙은 가역성 / 소규모·저위험 사업부터 시작하고 성과와 여건에 따라 속도와 범위를 조정
넷째 원칙은 측정 가능성 / 만남이나 투입액이 아니라 통관시간·지원 도달률·기업 애로 해소·환경성과를 평가
- 상호이익: 다섯째 원칙은 상호이익 / 미얀마의 민생·인재·산업 수요와 한국의 공급망·시장·국민안전을 함께 증진

송승중(2026), 제3장.

13

원본 슬라이드 13

■ 외교·실무·상업의 세 정책행위 분리 (Three Policy Instruments)

- 외교적 판단, 실무적 관여, 상업적 거래를 분리하면 원칙과 실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공간이 확대

	외교적 판단	실무적 관여	상업적 거래
성격	국가대표성과 공식 관계의 수준에 관한 법적·정치적 결정	구체적 의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	기업의 계약과 투자
주체	정부, 외교 당국	관련 부처, 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 민간 부문
의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보건·재난·영사·기술·학술·국민안전 등	시장 접근, 공급망 확보, 이익 창출
안전장치	대화 자체를 특정한 외교적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음	사안별 확대 가능, 만남의 급·형식·의제·성과를 정교하게 설계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 환경·지역사회 실사를 전제로 추진 정부의 정보 제공 지원

- 정책수단 분리: 외교적 판단은 국가대표성과 공식 관계의 수준에 관한 법적·정치적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실무적 관여는 보건·재난·영사·기술·학술·국민안전 등 구체적 의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으로 사안별 확대 가능
- 관여의 설계: 상업적 거래는 기업의 계약과 투자이며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 환경·지역사회 실사를 전제로 추진
대화 자체를 특정한 외교적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고, 만남의 급·형식·의제·성과를 정교하게 설계 필요
- 정부의 역할: 정부는 기업이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규정 변화, 거래상대 정보, 지역별 안전·물류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을 담당

송승종(2026), 제2장 제1절.

14

원본 슬라이드 14

■ 2021년 정책의 2026년형 재점검 (Policy Recalibration)

- 정책 재점검은 기존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한 여건 속에서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

- 2021년 출발점: 2021년 3월
한국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군용물자, 전략물자 심사, 군용물자, 전략물자 심사, 개발협력에 관한 대응조치를 발표
동시에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협력은 계속 추진
예외를 두어 실무적 공간을 유지
- 2026년 변화: 5년 사이 새 연방정부가 출범했고 중국·인도·태국·아세안의 접근도 교역·안전·민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다변화
각 조치가 한국 국민 보호, 기업 안정, 미얀마 민생, 역내 협력이라는 당초 목적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분야별로 평가 필요
- 재점검 과제: 유지할 원칙, 조정할 절차, 확대할 민생협력을 구분한
'2026 한·미얀마 정책 재점검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

유지
조정
확대 보건, 농업, 재난, 영사, 학술, 직업교육

송승종(2026), 제3장 제1절; 외교부, 2021.3.12.

15

원본 슬라이드 15

■ 여러 층위의 미얀마와 대화 (Multi-Level Engagement)

● 지역별 여건이 다양한 미얀마에서는 중앙정부·지역사회·다자기구·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층 관여체계가 필요

- 네 개 채널: 정부 채널: 통관, 투자제도, 기업 안전, 영사, 국가 간 경제협력과 같은 공식 의제를 협의
- 지역 채널: 자원지대와 국경지역의 생활경제, 환경, 물류,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

- 격의 차등화:

다자 채널: 아세안,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재난·보건·교육·인도적 협력을 추진

민간 채널: 대학·연구기관·경제단체·산업협회가 정보·기술·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정부 간 의제를 준비



- 공동 목표: 각 통로의 격과 의제를 달리하되, 모든 소통은 미얀마 국민의 삶과 한·미얀마 공동이익을 높인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

송승중(2026), 제3장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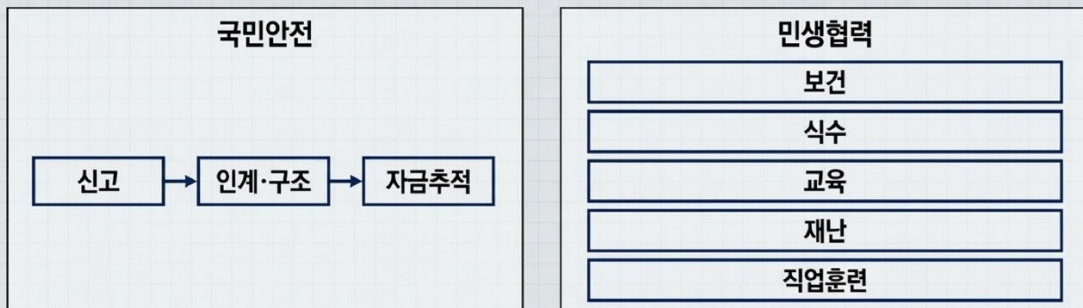
16

원본 슬라이드 16

■ 경제협력을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으로 확장 (Human Security Cooperation)

● 초국경 범죄 대응과 인도적 협력은 한국 국민 보호와 미얀마 주민의 생활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실용적 협력 분야

- 국민안전: 한국·미얀마·태국·아세안나폴 사이에 피해 신고, 실종 경로, 신원 확인, 국경 인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온라인 금융사기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허위 구인광고 차단, 피해 예방교육, 긴급 구조 연락체계를 연계
- 민생협력: 감염병 감시, 모자보건, 식수·위생, 학교 복구, 직업교육은 정치적 부담이 낮고 주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
지원은 유엔기구·국제적십자위원회·아세안 인도적지원조정센터와 협력해 지역별 도달 가능성을 제고
- 성과 측정: 성과는 투입액보다 도달 인구, 접근 지역, 통관 소요시간, 교육·보건서비스 회복률, 한국 국민 구조·예방 실적으로 측정



송승중(2026), 제3장 제3절; 외교부 한-ASEAN 정상회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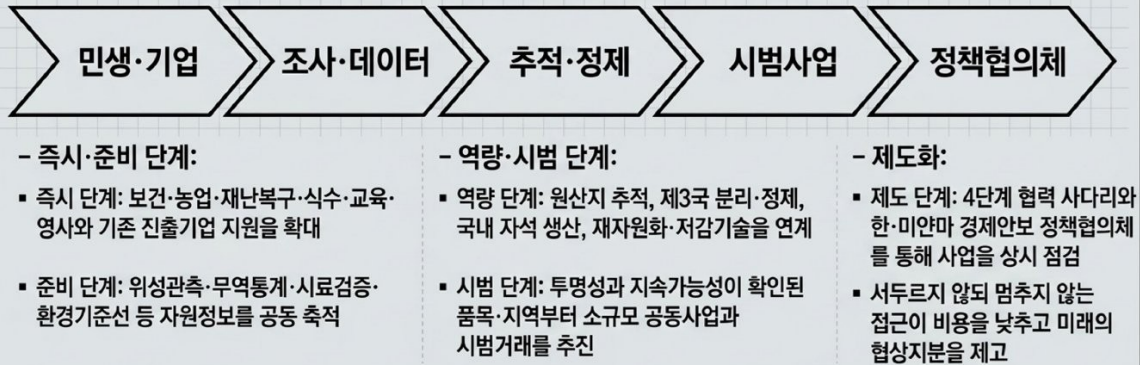
17

원본 슬라이드 17

V. 한·미얀마 경험 로드맵 : 문틈 열고 선택지 선점

■ 한·미얀마 경제협력의 단계별 로드맵 (Economic Cooperation Roadmap)

- 경제협력은 즉시 가능한 민생·기업 지원에서 시작해 조사·추적·정책 역량을 거쳐 상설 제도로 발전 필요, 양국 협력의 예측 가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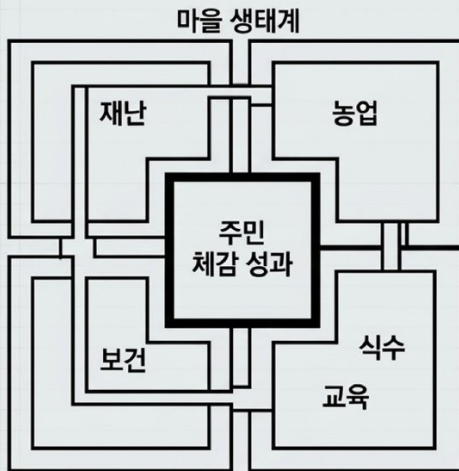
송승종(2026), 제4장.

18

원본 슬라이드 18

■ 즉시 착수할 민생·재난복구 패키지 (Immediate Livelihood Package)

- 첫 협력은 대규모 개발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양국이 함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저위험 민생사업에서 착수 필요



- 재난·농업:
 - 재난복구: 2025년 대지진 피해 조사, 내진 보강, 도시 인프라 복구, 재난 대응 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 농업: 우량종자·관개·저장·저온유통·농기계 정비를 연결해 농가 소득과 식량안정을 함께 제고
- 보건·생활기반:
 - 보건: 감염병 감시, 모자보건, 이동진료, 의료인력 교육과 필수약품 물류를 연계
 - 식수·위생: 소규모 정수시설, 수질검사, 위생시설을 지역 단위로 보급하고 유지관리 인력을 양성
- 성과관리:
 - 교육·직업훈련: 한국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 전기·기계·융합·농식품·디지털 교육을 확대
 - 성과관리: 투입예산보다 수혜인구·서비스 회복률·현지 고용·기술이전·시설 유지율을 핵심지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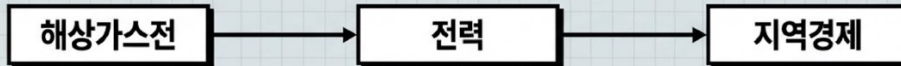
송승종(2026), 제4장 제1절; World Bank, Myanmar Economic Monitor, 2026.6.16.

19

원본 슬라이드 19

■ 기존 진출기업과 교민 기반의 보호 (Protecting Existing Stakes)

● 신규 투자 유치에 앞서 이미 형성된 기업·교민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관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



- 기존 경제기반: 한국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는 79억 달러, 1,379건이며 2025년 교역액은 8.9억 달러(수출 3.1억·수입 5.8억 달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A-1·A-3 해상광구 지분 51%를 보유하고 9,263억 원 규모의 4단계 개발을 진행

- 가스전의 의미: 2027년 7월 첫 가스 생산이 예상되며, 이 사업은 상업자산이자 미얀마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민생 인프라 정부는 인력 안전, 자재 통관, 결제 경로,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창구를 마련 필요

- 지원체계: 공관의 영사인력·비상연락망을 보강하고 기업·교민·공관의 분기별 비상대응 훈련과 지역별 연락체계를 정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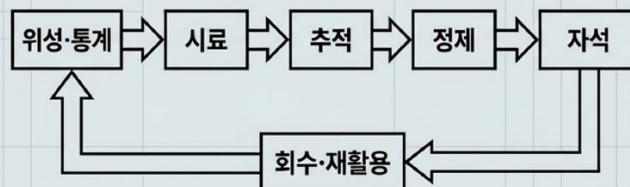
송승중(2026), 제4장 제1절; 포스코인터내셔널 관련 자료.

20

원본 슬라이드 20

■ 채굴보다 조사·추적·정제 역량 우선 (Capabilities Before Extraction)

● 되돌리기 어려운 투자보다 정세가 변해도 가치가 남는 데이터·추적·정제 역량을 먼저 확보 필요



- 조사·검증
조사: 위성영상으로 광산·도로·침출조·환경 변화를 관찰하고 중국 해관통계를 품목·세관·월별로 분석
검증: 투명한 절차로 시료를 확보해 국내 연구기관에서 품위·회수율·불순물을 분석하고 미얀마 기관과 결과를 공유

- 추적·정제
추적: 동위원소비·미량원소 조성을 활용한 산지 판별과 광산·농축·정제·자석의 디지털 이력체계를 시범 구축
정제: 호주·인도·일본 등과 제3국 분리·정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한국 내 분리·합금·자석 설비 투자를 확대

- 순환·플랫폼
순환: 폐자석·폐모터에서 디스프로슘·테르븀을 회수하고 중희토류 사용을 줄이는 소재·모터 기술을 공동 연구
플랫폼: '한·미얀마 핵심광물 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질·환경·물류·규정·시장 데이터를 추적

송승중(2026), 제4장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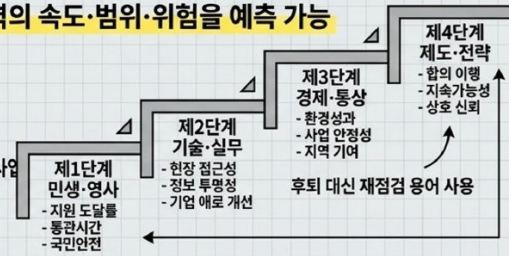
21

원본 슬라이드 21

■ 예측 가능한 4단계 협력 사다리 (Four-Step Engagement Ladder)

● 단계와 성과지표가 명확할수록 양국 정부와 기업은 협력의 속도·범위·위험을 예측 가능

- 단계별 협력: 제1단계 민생·영사: 보건·재난·국민보호·연구기관 대화 / 지표는 지원 도달률, 통관시간, 국민안전
- 객관적 지표: 제3단계 경제·통상: 개발협력 확대, 무역·투자 실무협의, 투명한 시범거래 / 지표는 환경성과, 사업 안정성, 지역 기여
- 제4단계 제도·전략: 정부 간 자원협력, 상설 정책협의, 대형 공동사업 / 지표는 합의 이행, 지속가능성, 상호 신뢰
- 가역성: 각 단계는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공동 평가를 통해 확대·유지·재점검을 결정하는 가역적 구조로 운용



<표 2> 4단계 관여 사다리와 단계별 전진·후퇴 조건

단계	단계	주요 내용	전진 조건	후퇴 조건	검증 지표
제1단계	인도·영사	인도적 지원, 재난복구, 국민 보호 협력, 연구기관 간 대화	조건 없이 즉시 착수하며 상시 유지	적용하지 않음	도달 인구, 접근 구역 분포, 통관 소요 일수
제2단계	기술·실무	지질·환경 조사 협력, 원산지 추적 기술 협의, 조국경 범죄 수사 공조, 진출기업 지원	인도적 접근의 실질적 확대, 한국 국민에 대한 신변 위해 감소	국민 억류·피해의 재증가, 인도적 접근의 차단	억류 국민 수, 구출 인원, 지원 물자 전용 사례
제3단계	경제·통상	개발협력 부분 재개, 무역·투자 실무협의의 재가동, 제3국 경제 연계 원료 시범 거래	정치범 문제의 실질적 진전, 민간인 대상 무력 사용의 검증 가능한 감축, 광물 거래 자금 흐름의 최소 투명성	정치범 재수감, 공습·민간인 사상자의 재증가	석방 인원과 재수감 여부, 공습 횟수, 학교·병원 파괴 건수
제4단계	제도·정치	대사급 외교관계 정상화, 개발협력 전면 재개, 정부 간 자원협력 협정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치 대화 개시, 검증 가능한 휴전	대화 중단, 휴전 붕괴, 신규 대규모 공세	합의 문서의 존재, 참여 주체의 범위, 휴전 위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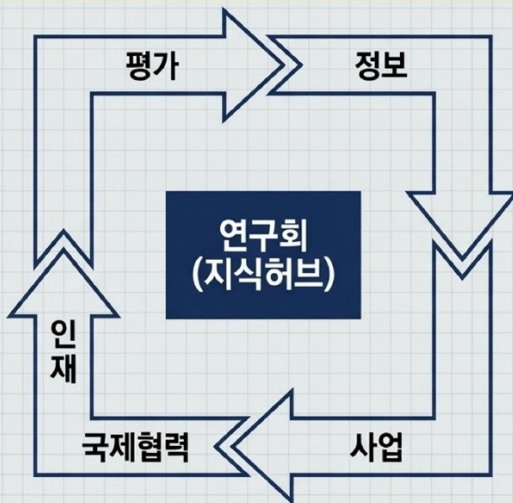
송승중(2026), 제4장 제3절 <표 2>를 창립총회용 재구성.

22

원본 슬라이드 22

■ 한·미얀마 경제안보 정책협의체 (Economic Security Policy Council)

● 경제협력을 일회성 행사에서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체가 필요



- 평가·정보
 - 정세·시장 평가: 분기별로 정치·경제·산업·지역 동향을 갱신하고 4단계 협력 사다리의 현재 위치를 점검
 - 기업 정보지원: 국제규정, 거래상대, 실소유 구조, 지역별 안전, 통관·결제 변화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
- 사업·국제조율
 - 공동 의제 발굴: 핵심광물·가스·전력·농업·보건·디지털·재난·인재양성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 국제 조율: 아세안·중국·인도·일본·호주·국제기구와 중복을 줄이고 상호보완적 사업을 설계
- 연구회 역할
 - 인재 네트워크: 양국 청년 연구자·기술자·기업인을 위한 펠로십, 공동연구, 인턴십, 직업교육을 운영
 - 연구회 역할: 초기 사무국과 지식허브를 맡아 현지 정보·인맥·사업 목록을 축적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공

송승중(2026), 제4장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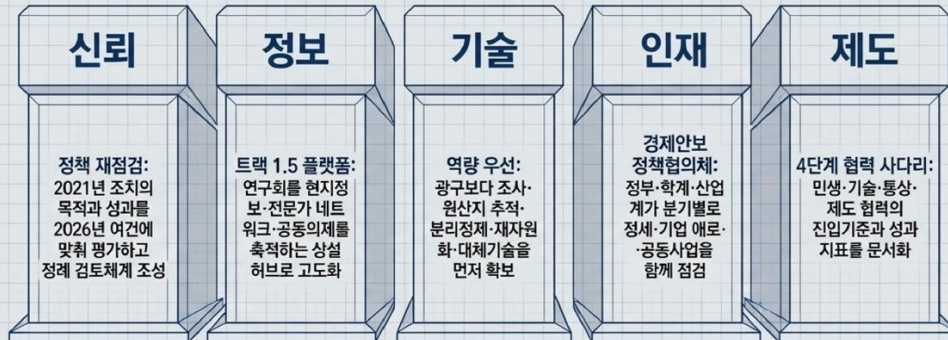
23

원본 슬라이드 23

VI. 정책 제언

■ 5대 정책 제언 (Five Policy Proposals)

- 지금 선점해야 할 것은 광산이 아니라 **신뢰·정보·기술·인재·제도**라는 다섯 가지 장기자산



- 정책·사다리: 제언 1 | 정책 재점검: 2021년 조치의 목적과 성과를 2026년 여건에 맞춰 분야별로 평가하고 정례 검토체계를 조성
제언 2 | 4단계 협력 사다리: 민생·기술·통상·제도 협력의 진입기준과 성과지표를 문서화
- 역량·플랫폼: 제언 3 | 역량 우선: 광구보다 조사·원산지 추적·분리정제·재자원화·대체기술을 먼저 확보
제언 4 | 트랙 1.5 플랫폼: 연구회를 현지정보·전문가 네트워크·공동의제를 축적하는 상설 허브로 고도화
- 정책협의체: 제언 5 | 경제안보 정책협의체: 정부·학계·산업계가 분기별로 정세·기업 애로·공동사업을 함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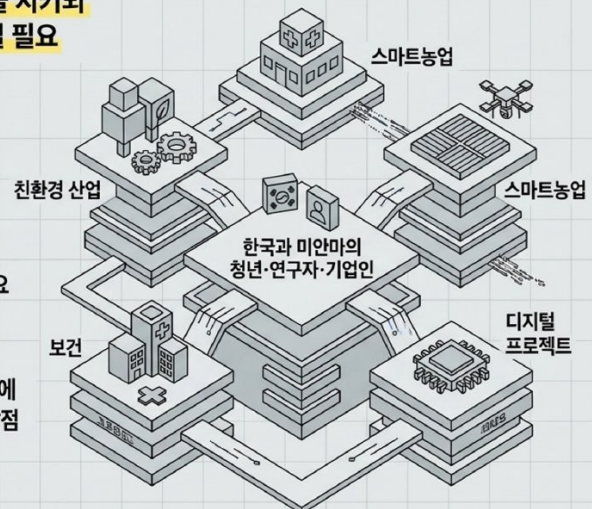
24

원본 슬라이드 24

■ 공동번영을 향한 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 for Shared Prosperity)

- 한·미얀마 협력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실질 성과를 만들며, 자원을 넘어 사람과 미래를 연결 필요

- 연결국가: 미얀마는 인도양과 아세안, 중국과 인도를 잇는 연결국가이자 한국 미래산업의 잠재적 경제안보 파트너
한국은 전기차·로봇·에너지·디지털·보건·농업·재난대응 분야의 경험을 미얀마의 발전 수요와 결합 가능
- 상호보완성: 협력은 민생과 국민안전에서 시작해 조사·기술·인재로 넓히고, 성과와 신뢰가 축적될 때 통상과 제도로 발전 필요
미얀마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역량을, 한국은 공급망 회복력과 시장·외교의 선택지를 얻는 상생 구조를 지향 필요
- 공동번영: 오늘 연구회의 창립은 양국 사이의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여는 행사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협력의 문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25

원본 슬라이드 25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Future Prospects for

MYANMAR-KOREA ECONOMIC COOPERATION

Presented by
Ms. Win Pa Pa Thu
Economic Counsell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WPPT

Date
September 15, 2026
@ WPPT

1



Myanmar in the Regional Economic Landscape

Myanmar: A Strategic Gateway to Asia

-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 Connectivity with ASEAN, China and India
- Strategic potential for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 Opportunities for supply-chain diversification
- Gateway to a wider regional market

@ WPPT

2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Future Prospects for Myanmar-Korea Economic Cooperation



MYANMAR-KOREA ECONOMIC RELATIONS TODAY

- Myanmar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 growing economic partnership built on trade, investment, and industrial cooperation etc. As of 31 August 2026,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among the top ten foreign investors in Myanmar.

01



Trade & Investment

02



Bilateral Agreements

03



Frameworks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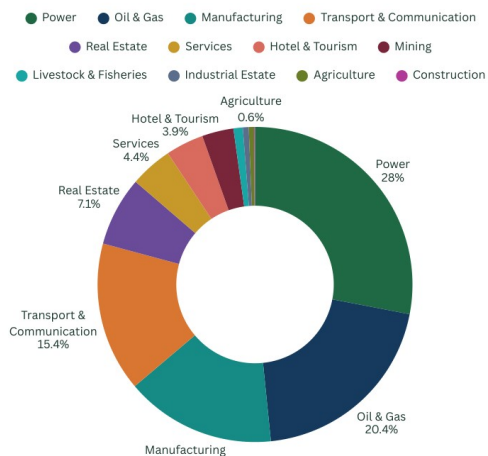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Source: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Myanmar (DICA)

Foreign Investment Of Permitted Projects in Myanmar by Sector

Existing Projects as of 31 August 2026



APPROVED FOREIGN INVESTMENT SHARE

Power	— 28.02% US\$20,501.968 million
Oil & Gas	— 20.37% US\$14,908.610 million
Manufacturing	— 15.44% US\$11,295.573 million
Transport & Communication	— 15.36% US\$11,243.045 million
Real Estate	— 7.11% US\$5,203.536 million
Services	— 4.36% US\$3,189.930 million
Hotel & Tourism	— 3.91% US\$2,860.265 million
Mining	— 3.23% US\$2,361.315 million
Livestock & Fisheries	— 0.96% US\$704.339 million
Industrial Estate	— 0.60% US\$440.669 million
Agriculture	— 0.55% US\$405.690 million
Construction	— 0.09% US\$65.000 million

SUMMARY

Total — US\$73,179.940 million, 1,903 projects, 100%
 SEZ Total — US\$2,263.092 million, 118 projects, 3.00%
 Grand Total — US\$75,443.032 million, 2,021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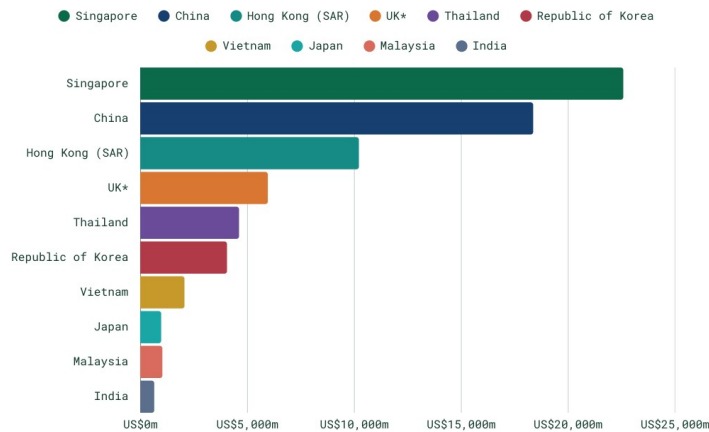
Source: Ministry of Commerce, Myanmar
 © WPPT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Future Prospects for Myanmar-Korea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 Region

Existing Projects as of 31 August 2026

TOP 10 — approved amount (US\$ million)



TOP 10 DETAIL | Approved amount · Share · Projects

Country / Region	Approved amount	Share	Projects
Singapore	US\$22,573.743m	30.85%	300
China	US\$18,359.996m	25.09%	598
Hong Kong (SAR)	US\$10,209.990m	13.95%	280
UK*	US\$5,950.689m	8.13%	61
Thailand	US\$4,604.694m	6.29%	103
Republic of Korea	US\$4,042.341m	5.52%	174
Vietnam	US\$2,053.855m	2.81%	30
Japan	US\$962.979m	1.32%	101
Malaysia	US\$1,019.031m	1.39%	32
India	US\$639.185m	0.87%	33

ALL OTHER COUNTRIES / REGIONS

01 Netherlands	20 Ireland
02 France	21 Sri Lanka
03 USA	22 New Zealand
04 Luxembourg	23 Philippines
05 Samoa	24 Switzerland
06 Canada	25 Qatar
07 China (Taipei)	26 Bangladesh
08 UAE	27 Republic of Liberia
09 Russian Federation	28 Austria
10 Brunei Darussalam	29 Belize
11 Indonesia	30 Sweden
12 Australia	31 South Africa
13 Seychelles	32 Cook Islands
14 Macau (SAR)	33 Laos
15 Republic of Mauritius	34 Estonia
16 Norway	35 Cambodia
17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	36 Afghanistan
18 Germany	37 Brazil
19 Lebanon	38 Italy

@ WPPT



TOTAL

1,903 projects | US\$ 73,179.940 million | 100%
Source: Ministry of Commerce, Myanmar

SEZ TOTAL

118 projects | US\$ 2,263.092 million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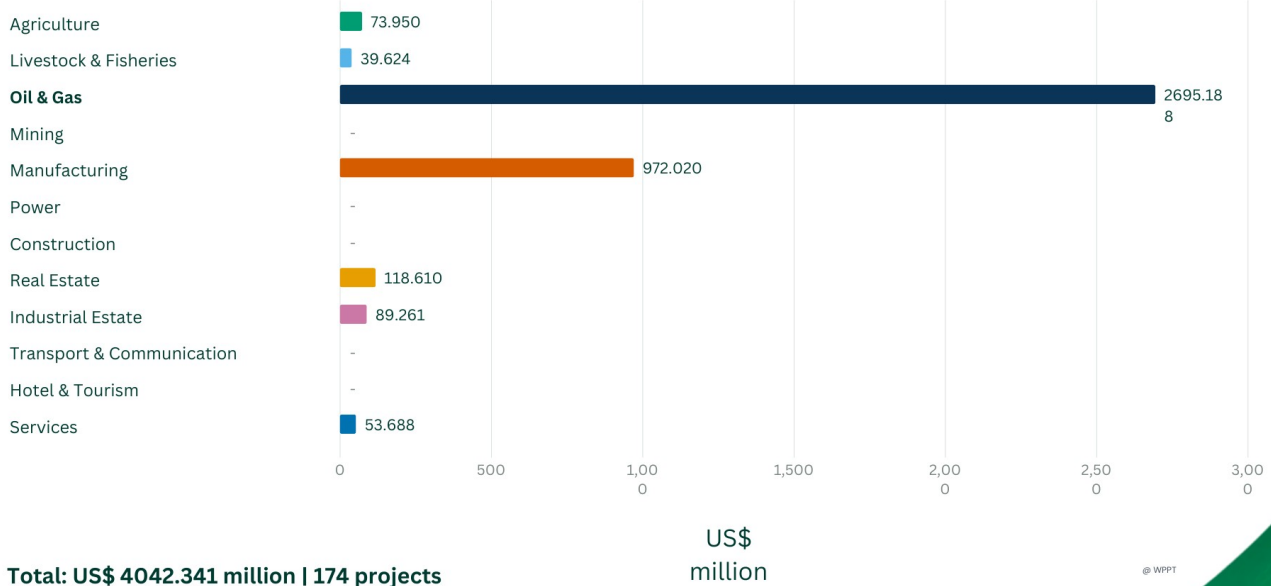
GRAND TOTAL

2,021 projects | US\$ 75,443.032 million

7

Foreign Investment of Korea in Myanmar

As of 31 August 2026 | Investment amount (US\$ million)



@ WPPT

8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Future Prospects for Myanmar-Korea Economic Cooperation

Priorities Sectors of the Region/ State

1 Mandalay Region 1. Labor-Based Industry 2. Eco-Tourism Industry 3. Agricultural Production, Services and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ion 4. Value-added Food Production 5. Livestock Breeding 6. Building of Low-cost housing	2 Sagaing Region 1.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2. Infrastructure Sector 3. Hotel and Tourism 4. Mining	3 Magway Region 1. Agriculture 2. Livestock 3. Electricity 4. Manufacturing 5. Hotel and Tourism 6. Forest 7. Mining	4 Bago 1. Solar and Electric Power Generation 2. Establishment of Industrial Estate 3. Establishing and Opening of Natural Resorts 4. Construction of Low-cost housing 5. Livestock and Production of Freshwater Farm Products 6. Agriculture 7. Construction of road 8. Transportation 9. Planting rubber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value-added ribbed sheets 10. Bamboo-based Industry
5 Ayeyawady 1. Agriculture Sector; agriculture and its related sector 2. Livestock and Fishery Sector 3. Hotel and Tourism Sector 4. Transport and Communication Sector 5. Electric Sector 6. Manufacturing Sector 7. Industrial Estate Sector 8. Supply and transport services 9. Education Services Sector 10. Health Services Sector 11. Research Development Sector	6 Yangon Region 1. Manufacturing Sector (value-added products; imported substitute commodities) 2. Infrastructure Sector 3.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Sector 4. Hotel and Tourism Sector 5. Education Services Sector 6. Health Services Sector 7. Supply and Transport Services Sector	7 Tanintharyi Region 1. Construction of road and bridge 2.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3. Livestock production, breeding and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4. Natural resources (production of pearl and mining) 5. Agriculture and its related services 6. City development activities (water, wastewater, municipality, affordable housing), etc. 7. Establishment of Industrial Zone 8. Establishment of new urban area 9. Construction of sea port and river port 10. Manage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port 11. Manufacturing (tyre, fish products, value-added production of prawn and crab, vegetables, fruit, garment, palm oil) 12. Hotel and tourism services 13. Other value-added (rubber and betel nut tree) 14. Health care services 15. Education services 16. Production of rubber and other wood	8 Kachin State 1. Agricultural 2. Production 3. Hotel and Tourism 4. Logistics 5. Housing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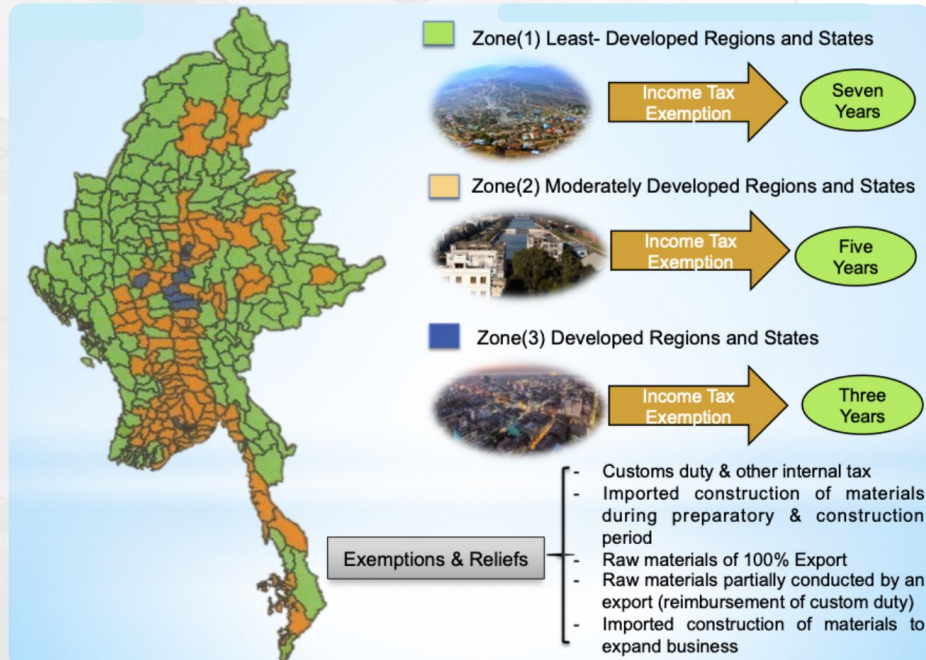
Source: <http://www.miler.gov.mm/en/region>

Priorities Sectors of the Region/ State

9 Kayah State (3 parts) 1. Hotel & Tourism Services 2. Agricultural Products Based Industries 3. Renting Services on Agricultural Machines, Soil Testing Service, Weeding Activities and Sanitation of Pest and Pathogens 4. Services for Constructing and Hiring Warehouse, Silos and Tank 5. Value-added Production of Traditional Food 6.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Wholesale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7. Hydro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8. Production and Refinement of Minerals 9. Passenger Transport and Freight Transport by Train 10. Livestock Production, Breeding and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and its Related Services 11. Production of Concrete, Cement, Limestone, Brick, Ceramic and Plaster	Kayah State 1. Establishment of Livestock Zone 2. Establishment of Industrial Zone 3. Production of Marble 4. Establishment of Forest Plantation 5. Manufacturing of Pulp, Paper and Paper Board 6. Construction of Dry Port and Bus Station 1. Establishment of Cold Chain 2. Health Services 3. Education Services	10 Kayin State 1. Agriculture Sector 2. Hotels and Tourism Travelling Sector 3. Manufacturing Sector 4. Transport and Logistics Sector 5. Electricity Sector	11 Chin State 1. Hotel and Tourism Services 2.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3. Agriculture and its related services (konjac, avocado, monkey cry, ginger, coffee, grape, mulberry tree) 4. Livestock production and breeding (Mythun, cattle and buffalo farming, breeding and production) 5.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6. Establishment of Industrial Zone
12 Mon State 1. Agriculture / Livestock Sector 2. Rubber – based manufacturing 3. Agriculture/ Livestock-based value added manufacturing 4. Health Services Sector 5. Establishment of forest plantations 6. Eco- tourism 7. Rental Services of construction of waterport, warehouse, Silos and Lagoon 8. Electricity & Energy Sector	13 Rakhine State 1. Agriculture 2. Livestock and fishery 3.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5. Tourism 6. Development and SMEs and Industrial zone	14 Shan State 1. Hotel and Tourism 2. Agriculture 3. Electrification 4. Agro-Based (Vale-Added) 5. Technology Service 6. Mining 7. Education Service 8.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9. Livestock and Fishery 10.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service	15 NayPyi Taw 1. Agriculture and its related services (except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tobacco and virginia) 2. Livestock production, breeding and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and its related services 3. Manufacturing (Except manufacturing of cigarette, liqueur, beer, and other harmful products to health) 4. Supply and transport services 5. Education Services 6.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Source: <http://www.miler.gov.mm/en/region>

TAX INCENTIVES WITH HOLIDAYS



PRIORITY AGRICULTURAL PRODUCTS FROM MYANMAR WITH EXPORT POTENTIAL TO THE KOREAN MARKET



✓ Pulses and Beans



✓ Chilies



✓ Maize(Corn)



✓ Onions



✓ Villous amomum (or) Roselle



✓ Sesame



✓ Coffee

PRIORITY AGRICULTURAL PRODUCTS FROM MYANMAR WITH EXPORT POTENTIAL TO THE KOREAN MARKET



✓ Rice



✓ Mangoes



✓ Avoca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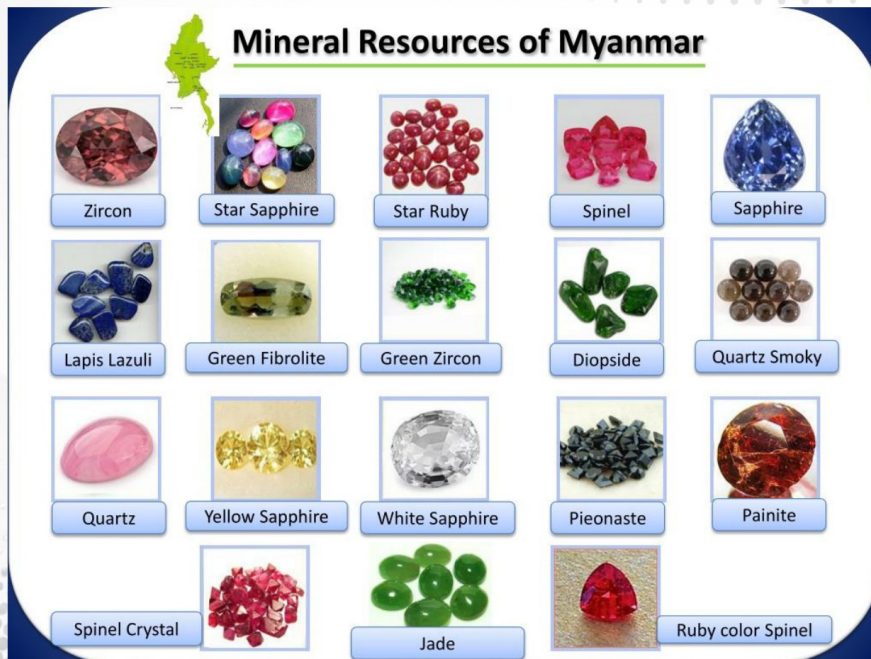


- Value-added Agricultural Goods
- Processed Foods,
- Value-added Textiles materials and
- Value-added Traditional Handicrafts



13

MINERAL RESOURCES OF MYANMAR



Copper



© WPPT

14

INVESTMENT OFFER: MYANMAR RICE BRAN OIL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eoul

INVEST IN MYANMAR RICE BRAN OIL

A Natural Choice for Health,
A Smart Opportunity for Investors

미안마 쌀겨유 산업에 투자하세요
건강한 선택, 현명한 투자

Myanmar Rice Bran Oil - Pure, Natural and Sustainable
Partner with us to deliver premium quality oil to global markets and grow together.

100% NATURAL
No Chemicals
No Trans Fat

HEALTHY CHOICE
Rich in B-Vitamins
Good for Heart

PREMIUM QUALITY
Refined from
First Rice Bran

SUSTAINABLE &
ENVIRONMENT FRIENDLY
Supporting Farmers,
Protecting Nature

WHY INVEST IN MYANMAR RICE BRAN OIL?

- Abundant Raw Material**
Myanmar is one of the top rice producing countries with millions of hectares of rice land available annually.
- High Market Demand**
Global demand for healthy, natural and premium cooking oils is growing rapidly.
- Strategic Location**
Gateway to Asia - close proximity to Korea, China, Japan and other regional markets.
- Cost Advantage**
Competitive production cost with high quality output.
- Government Support**
Investor friendly policies, incentives and assistance for foreign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 Rice Bran Oil Production Plants**
Build or expand modern refining facilities.
- Packaging & Branding**
Develop premium brands for local and export markets.
- Export & Distribution**
Strong potential to export to Korea, EU, USA, China, ASEAN and beyond.
- By-products Utilization**
Rice bran for animal feed, dietary fiber, cosmetics, and nutraceuticals.
- Joint Venture & Partnership**
Collaborate with reliable local partners for long-term success.

GLOBAL MARKET POTENTIAL

- Global Rice Bran Oil Market Size USD 3.8 Billion in 2023 and growing at a CAGR of over 8%.
- Health-conscious consumers prefer natural, non-GMO, and antioxidant-rich oils.
- Korea is one of the key import markets with strong demand for premium edible oils.

WHY KOREAN INVESTORS?

- Strong trade and friendship between Myanmar and Korea.
- Growing demand for healthy edible oils in Korea.
- Opportunities for long-term partnership and mutual growth.

WHAT MAKES RICE BRAN OIL SPECIAL?
Rice Bran Oil is one of the healthiest cooking oils in the world. It is rich in essential nutrients, antioxidants and beneficial compounds.

RICH IN NATURAL VITAMINS

Vitamin E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3	Vitamin B6	Vitamin B9
Helps reduce cholesterol (LDL) and supports good cholesterol (HDL).	Supports energy metabolism.	Supports energy metabolism.	Supports energy metabolism.	Supports energy metabolism.	Supports energy metabolism.

HEALTH BENEFITS

- Heart Health**
Helps reduce bad cholesterol (LDL) and supports good cholesterol (HDL).
- Antioxidant Protection**
Protects body cells from free radicals and reduces risk of chronic diseases.
- Good for Skin & Hair**
Vitamin E and antioxidants promote healthy glowing skin and strong hair.
- Supports Digestion**
Light and easy to digest, suitable for all age groups.
- Boosts Immunity**
Contains natural compounds that support overall well-being.

LET'S GROW TOGETHER
Be part of a sustainable, profitable and meaningful business that brings wealth to investors and prosperity to our future.
Invest in Myanmar Rice Bran Oil Today!

CONTACT US
Economic Officer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eoul
12, Pousan-ro, Gangnam-gu, Seoul 04521, Korea
Tel: +82-2-552-1550 (Ext. 221) Fax: +82-2-552-1551
Email: Myanmar.embassy@korea.go.kr

MYANMAR RICE BRAN OIL
100% PURE NATURAL

© WPPT

15

FIVE AREAS FOR FUTURE MYANMAR-KOREA COOPERATION

1.
Trade & Investment

2.
Infrastructure & Connectivity

3.
Manufacturing & Supply Chains

4.
Digital & Green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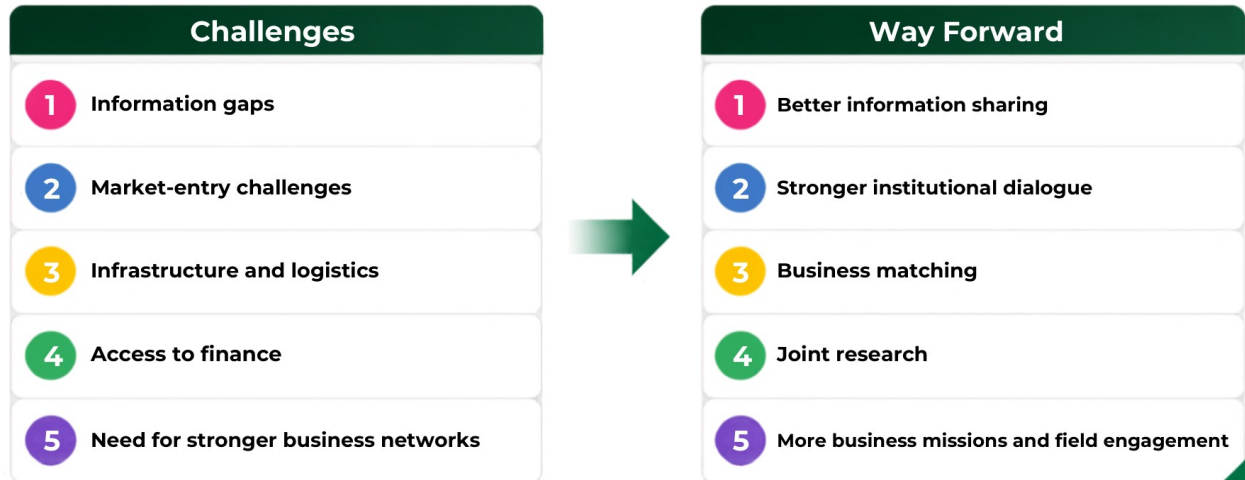
5.
Human Capital & Technology Transfer

© WPPT

16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Challenges & Priorities



© WPPT

17

CONNECTING BUSINESSES & INSTITUTION



Myanmar Embassy  KMAESS

© WPPT

18

Outlook & Conclusion

Outlook for Myanmar-Korea Economic Cooperation

From Potential to Partnership

Myanmar

Myanmar offers strategic location, market potential and resources.

Korea

Korea brings technology, industrial capabilities and investment experience.

Together

Together, we can develop practical, sustainable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 WPPT

19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MYANMAR
EMBASSY**



Call Us
+82 10-5132-1584



Connect With Us
<https://meseoul.org>



Email Us
winpapathu.moc@gmail.com

@ WPPT

20

한국 - 미얀마 경제협력 사례 : 요진미얀마시멘트 공장 투자

YOJIN GROUP

WHY?
MYANMAR

요진건설산업
김선규



MYANMAR, YOUR NEXT GROWTH PARTNER

REAL OPPORTUNITIES, INFORMED DECISIONS, SUSTAINABLE SUCCESS

POSITIVE

주목해야 할 긍정적 요인

- 전략적 위치**
ASEAN과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신흥시장 접근성과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 보유
- 성장하는 시장**
철도 풍부한 노동력과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내수 기반의 성장과 소비 잠재력이 큼
- 풍부한 자원과 농업 잠재력**
천연가스, 광물, 수산업 등 자원이 풍부하며 농업 분야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이 높음
- 인프라 및 산업 개발 기회**
교통, 전력,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성장이 활발히 추진 중
- 투자 친화 정책**
외국인 투자법, 투자위원회(MIC)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제공
- 장기적 성장 잠재력**
인구 구조, 자력,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CAUTION

주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

- 정책 및 규제 변동 가능성**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과 규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동향 모니터링이 필수
-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환율 및 금융 리스크**
환율 변동성과 자본 송금 제한 등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적·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인프라 및 운영 리스크**
인프라 부족, 물류 지연,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MYANMAR, YOUR NEXT GROWTH PARTNER

미얀마 투자 시 주의할 점

01 환율 및 금융

예시 환율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종류	단위	비율
중앙은행 환율	MMK/USD	2,100
은행 송금 환율	MMK/USD	3,800
블랙마켓 환율	MMK/USD	4,000+

-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간 큰 괴리 존재
- 해외 송금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수입품 및 수입대금 송금 제한
- 다른 무역통화는 송금 다소 원활

대응방안 투자금 유입 → 현지 운영 → 수입대금 지급 → 이익금 회수까지 외화 Flow를 사전에 설계

02 법인설립·인허가

- 법인설립 자체는 비교적 난이도 낮음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가능
- 사업 목적 및 투자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대응방안 투자 초기 단계에서 업종별 인허가 Roadmap를 사전에 확정

03 부동산·토지

일반 토지 취득 시

산업단지 입주 시

- 외국인 토지 직접 취득에는 제한
- 일반토지는 소유권/임대권/토지 사용권에 대한 철저한 실사 필요
- 외국인 투자자는 승인을 통해 장기임대 구조 활용 가능
- 검증된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할 경우 여러 혜택이 있음

대응방안 신규 토지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산업단지 입주를 우선 검토

04 노동력·인건비

-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 숙련/비숙련 노동력 확보가 과거보다 매우 어려움
- 생산적 중심의 인력 확보 및 유지 주요 과제
- 향후 인건비 상승과 제조원가 관계 고려 필요

대응방안 초기부터 인력 확보계획 + 생산성 향상 + 자동화 투자 검토

제 3 부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세션

정책 논의를 실질적인 기업·기관 간 협력으로 연결하는 실행 세션

13:30–14:00

KMAESS – SSS Group MOU 체결

Korea-Myanmar Association for Economic & Security Studies × SSS Group, Myanmar

KMAESS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SSS Group	Myanmar

양 기관은 한·미얀마 경제협력, 기업 및 기관 간 교류, 민간 네트워크 확대와 향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합니다.

14:00–14:30

SSS Group Company Presentation

Myanmar Business Presentation

SSS Group의 기업 활동과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및 협력 가능성을 소개하는 세션입니다. 발표 세부내용은 행사 당일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From Dialogue to Partnership

제 3 부는 제 2 부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한·미얀마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실제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으로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Business Cooperation & Networking

14:30-15:00

Korean Company Presentations

한국 기업의 사업 및 협력 프로젝트 소개

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미얀마 시장 및 현지 파트너와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15:00-16:00

Business Networking & Partnership Meetings

- 한·미얀마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 및 협력 논의
 - KMAESS 회원·참여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 향후 투자 및 사업협력 가능 분야 발굴
 - 기관·기업·전문가 간 후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

KMAESS · Research to Action

KMAESS는 연구와 정책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과 미얀마의 기업·기관·전문가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실행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제 3 부는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한국-미얀마 경제안보 전문 싱크탱크·실행 플랫폼

Korea-Myanmar Association for Economic & Security Studies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는 한국과 미얀마 간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양국의 정부·기업·학계·전문가·민간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얀마의 정치·경제·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 미얀마가 지속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기회를 모색합니다.

설립 경과

- 2025 년 1 월 · 한국-미얀마 국제경제안보연구소(KM-IESS) 설립 및 연구활동 시작
- 2025 년 11 월 · KMAESS 대표단 미얀마 방문 및 정부·경제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6 년 6 월 27 일 · 산업통상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 2026 년 9 월 15 일 · 사단법인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Research with Insight | Network with Trust | Cooperation with Impact

왜 KMAESS 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보는 시각

오늘날 국가 간 경제협력은 시장과 투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정학, 공급망, 자원·에너지, 기술, 외교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KMAESS는 이러한 복합 환경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현지 현실에 기반한 연구

미얀마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국제환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단기적 평가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정책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에서 실행으로

정책 연구와 세미나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의 기관·기업·전문가를 연결하여 투자, 비즈니스 협력, 공동사업 및 인적 네트워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가치

- 전문성 · 객관적 분석과 현장 경험의 결합
- 신뢰 · 지속적인 대화와 인적 네트워크
- 실행 · 연구와 정책을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결
- 상생 · 책임 있는 투자와 지속가능한 공동발전

주요 사업 및 협력 분야

정책연구·정책제안

미얀마 정치·외교·안보·경제 동향 분석, 경제안보 이슈 연구, 정책브리프 및 정책제안

경제협력·비즈니스

투자환경 분석, 기업·기관 간 파트너 발굴, 비즈니스 포럼 및 기업설명회, 협력 프로젝트 발굴

학술·전문가 교류

세미나·포럼·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미얀마 정부·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교류, 한국의 유관기관·기업과 협력채널 구축

문화·인적 교류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문화 교류 및 민간 네트워크 확대

협력 네트워크

국내외 연구기관·기업·경제단체·학계·전문가 / 미얀마 정부·기관 / 주한 미얀마 대사관·무관부 / 한국 정부·공공 기관 및 유관단체

조직 · 회원 · 참여

주요 조직

- 이사장 최신일
- 고문 이백순
- 자문위원 문성묵 · 주은식 · 홍규덕
- • 학술·연구위원회 김태현 · 송승종 | 경제협력위원회 소양섭
- 국제협력위원회 김선규 | 문화협력위원회 배슬민
- 사무국 사무총장 김창배 · 사무국장 이시창

회원

정회원(개인·기업),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과 기업·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KMAESS의 연구와 협력사업에 함께합니다.

연회비 개인회원 10만원 | 기업회원 50만원 이상

KMAESS가 지향하는 역할

한국과 미얀마를 잇는 신뢰받는 지식과 협력의 가교이자, 정책·연구·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실행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Research with Insight

Network with Trust

Cooperation with Impact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 KMAESS

www.kmaess.or.kr · Seoul, Republic of Korea